

제목: "지금 기경하고 찾으라"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올 해 한 해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낫 종교 생활하다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착각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 1) _____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 2) 묵은 땅을 _____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 3) 하나님을 늘 찾아 그를 _____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 헌금	
주일 헌금	
합계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지	
프랑스	백남일 김유경 선교사 (북 아프리카 사역)
터어키	SILKWAVE 실크 웨이브 선교회 (이슬람권 사역)
한인 2세권 교회	Deep Roots Church 깊은 뿌리교회 (New Jersey, USA)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지금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호세아 10장 12절)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and seek the Lord" (Hosea 10: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호세아 10장 12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Hosea 10:12 구약 1265 페이지 Presider
- 말씀 "지금 기경하고 찾으라" 김성민 목사
Message Now Is The Time Rev. Kim
- 찬양 323(355)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다같이
Praise Call'd of God, We Honor the Call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임재 다같이
Praise and Prayer The Presence of God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접촉점 a point of contact)

요즘 들어 내가 살고 있는 밴쿠버 지역이 오레곤 포틀랜드를 닮아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며 먹을 곳을 많이 만들고 있다. 아무래도 먹는장사가 낫은 모양이다. 그런데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라 술파는 곳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저녁에 마땅히 갈만한 곳이 없는 도시라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술과 와인을 마시러가는 이유는 술 자체를 좋아해서 보다는 친구든 아니면 새로운 만남이든 아마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런데 그 술집이 과연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접촉점일까? 생각해 본다. 오히려 더 허무하고 더 외로움을 느끼고 오지는 않을까? 얼마 전에도 미국 남부 지방에서 한 여성이 술집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고 갔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돌아오고 말았던 일도 있었다. 이제는 함부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서도 안 되는가 보다. 세상이 그렇게 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은가보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르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친구들이 많아졌다. 물론 쉽지 않은 관계가 생기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과 비교할 때에 큰 축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기는 정말 힘든데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접촉점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문을 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할 교회로 만들어나가자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조차도 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세상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어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교회로 만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지하에서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전도지가 되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며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헌신을 다해야 한다.

어떻게 할까? 고민이다. 순종은 해야 하겠고 우리가 사는 상황은 그렇지 않고 결론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나에게 있다. 내가 접촉점이 되는 것이다. 술집에 가야 접촉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관심이 되면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 사람이 늘 긍정적이고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 사람이 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힘이 되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 사람도 상황이 좋지는 않은 듯하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기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나의 인생이 된다면 나를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접촉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8장 23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축복이 우리 앞에 지금 가까이 있다. 2020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교회 성도 한 사람의 옷자락을 열 명이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달라고 하는 바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2. 기도의 삶

하루 30분씩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새해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 2)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 3)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 4)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 5) 사역 하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아동부)
- 6) 하나씩 새롭게 진행 되는 교회의 사역들이 잘 정착되도록 (교육부)
- 7)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 8)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프랑스, 터키, 한인 2세권)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1월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5입니다. 구입하셔서 매일 같은 구절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헌금 봉투

헌금 봉투가 준비 되었습니다. 봉투 몇 개씩을 가지고 가셔서 예배 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봉투에 헌금 내용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1월 행사

1월 5일(주)	예배 후	2020년 계획 나눔
1월 12일(주)	예배 후	2019년 결산/예산 모임

7. 2020 달력

새해 교회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필요한대로 가지고 가셔서 주위에 끼고 필요한 분들과 나누며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8.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

교회 웹 페이지가 일단 완성 되었습니다. 늘 찾아보시고 또한 주위에 교회를 알릴 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